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시작

금주 수요일(25일)부터, 새벽 4시 50분에

금주 수요일(25일) 새벽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시 한 번 묵상하고 바라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날마다 새 교구씩 '주력 교구'를 정하여 해당 교구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여 가능한 다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온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피고자 하는 열심이고, 또 연약한 교구 식구라도 피차 격려하여 참석하게 하려는 사랑의 행동이다.

시 간 : 오전 4:50~5:30(찬양 및 기도회) 5:30 이후 (개인기도 시간)

주력교구 : 해당 날짜에 교구식구가 증점적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4월 2일까지 아래의 순서로 빈복음)

2월 25일 (수) 1, 7, 13교구

3월 1일 (월) 4, 10, 16교구

2월 26일 (목) 2, 8, 14교구

3월 2일 (화) 5, 11, 17교구

2월 27일 (금) 3, 9, 15교구

3월 3일 (수) 6, 12, 18교구

좌 석 : 주력 교구는 강대상을 중심으로 앞 위치에 있는 장로석과 우측의 두 좌석을 이용한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한 데 모아 서로 격려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 한 사람쯤 참석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형편과 사정이 다 있지만, 희생을 하면서라도 자발적으로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도록 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3 참고).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진실하게 믿고 마르도록 하자.



깊은 기도를 향한 갈망

충현교회의 새벽기도회

"아!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치고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비록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원이 제아무리 간절해도, 정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절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 부으며 기도해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깊은 기도를 향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기도할 것이 되고 주님과 교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런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낮 시간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밤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의욕이나 집중력

도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힘들기는 해도 가장 안전하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가 새벽밖에 없다. 더욱이 새벽 시간에는 교회에 함께 모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보되어 있으니 더욱 좋다. 교회에는 '새벽 5시'라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30분간의 경건한 예배가 있을 후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므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될수록 새벽기도가 꼭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크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셨던 주님도 이른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지 않았던가? '새벽 오히려 마땅히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우리도 육신만 편하게 하는 새벽잠을 떨쳐버리고 영혼을 부요케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형편이 닿는 대로 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

오늘 주일찬양예배 시에 2004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이 거행된다. 그 동안 교회가 지정한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문답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번엔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된다. 학습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에, 유아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갈릴리움에, 각각 입장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란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번엔 학습교인과 세례교인이 되는 새 가족들을 온 교회가 사랑과 기쁨으로 축하해 주도록 하자.

계속되는 은혜의 잔치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 소식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주에는 5개 교회학교에서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신령한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뜨거운 기도의 후진과 학부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부 서	기 간	장 소
영아부	25-26일(수-목)	영아부실
유아부	25-26일(수-목)	유아부실
유치부	25-26일(수-목)	유치부실
중등2부	23-25일(월-수)	충현기도원
중등3부	23-25일(월-수)	충현기도원

은혜로 키우는 천국일론

전반1)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본 교회는 이번 학기에도 총 24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사 젊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신 것도 참으로 큰 기쁨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자량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붙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 하라는 열정으로 헌신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천국 일론으로 자라는 저 젊은이들을 우리는 작은 물질로 결에서 도울 뿐이다. 그리고 그 작은 물질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이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천국 일론 양상을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주 수요일1부예배 메시지 요약 4면에

TEMPTED BY THE DEVIL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Luke 4:1-2)

Just prior to Jesus' temptation, Luke clearly described His baptism in the Jordan River. He wrote, “Now when all the people were baptized, Jesus was also baptized, and while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out of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am well-pleased” (Lk. 3:21-22). Here we see heaven opened and the Holy Spirit come down, and hear God praise His much-loved Son. Right after this great phenomenon, Luke tells us that Jesus was full of the Holy Spirit. We see that everything concerning His spiritual life was perfect.

God's recognition of Jesus, as “My beloved Son,” makes Him the Son of God. This Son of God came to earth to do His Father's will. He made the decision to follow and obey His Father God. As a result, He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aroun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Jesus did not go into the wilderness because He wanted to; He went because the Holy Spirit guided Him there. The Holy Spirit guided Him all around there not because of His own will, but because Father God directed Him to do so.

In the wilderness, the Holy Spirit led Jesus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had ended, He became hungry.” During these forty days of Holy Spirit leading, Jesus listened to no one but the Holy Spirit. He fasted and prayed. He was in total communion with His Father. His spiritual condition,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together, was complete. He was spiritually full. In our eyes, His spiritual life was topnotch, with no further room for growth. As far as things in this world go, He had reached the highest possible spiritual condition. Nonetheless, the devil still tempted Him.

Do you think the devil does not tempt Christians? I hear many believers reason that those who pray, go to church, read their Bible, and fast, in other words those in top spiritual condition, do not get tempted by the devil. Why is that? If the devil tempted Jesus, why would he not tempt Christians? Unlike Jesus, our spiritual life always has room for growth. God's children relate with Him through His Son and Spirit, but if we want to continue developing, we, like Jesus, have to stay close with God.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s is a continual growth process that the devil relentlessly strives to devour.

As today is Lent Sunday, we are going to be spending the next six weeks walking with Jesus Christ in the wilderness. We are going to keep in mind His actions, “T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He was faithful to Him who appointed Him” (Heb. 3:1-2). Jesus was faithful to God, totally dedicated to His Father. If we don't think and act like Him, we will surrender to temptation. Indeed, Jesus was without sin, but His every condition was the same as us. As such, His experience with temptation makes it possible for Him to help us in our weaknesses. The Bible clearly tells us,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erefore let us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 4:14-16). Jesus endured and successfully passed His tests because He completely relied on the Lord. His victory came through obedience.

During Jesus' life on this earth, He prayed all the time to His Father. In

His relationship with Father God, He cried out that only God could overcome His temptation. So, He dedicated Himself to obedience and prayer, and God made Him perfect. “In the days of His flesh, He offered up both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ying and tears to the One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piety.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And having been made perfect, He became to all those who obey Him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Heb. 5:7-9). We learn that total obedience makes perfect victory.

Who are Christians? They are people who choose to follow God's direction. When you examine your life, what are your priorities? Which duties are most important? Is it your mom, dad, wife, children, or job? Is your spiritual life suffering from famine? So many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are only hungry when their health, business, or family life is in danger. During these times, they cry out for God to help, but the rest of their life is self-directed. Their spiritual life is dry and empty. Look at Jesus; He had a perfect spiritual life. Yet, the devil still tempted Him. He did not use His own self-power, but totally relied on His Lord and got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s rely on God's direction. If you want to do things your own way, depending on your own experience and talent, how can you ever expect victory? Romans 1:16 says,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believe Jesus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means you have faith. It means you do not believe in yourself, but only believe in God's power. That is the secret of salvation. In Chris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 1:17). Only righteous people live by faith. Only righteous people can win against the devil. If you try to live life on your own, you will always lose against the devil's temptations.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for Christians to prepare themselves spiritually by praying, fasting, and concentrating on the Word of God. You cannot spiritually grow unless you spiritually e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God. Deeply search your heart during this Lent season.

Our spirituality needs to grow continually because we are constantly being attacked by the devil. We need God's grace. We need to confess our weaknesses and sins. If we do, we will see God's victory. John 5:24 says,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If you listen, if you hear, if you believe in Jesus, that is faith to faith. Do not confess your successes, confess your weaknesses and when you do you will immediately feel the acts of the Holy Spirit.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He will support you spiritually.

Let us pray. Let us rely on the Lord. Let us be led by the Holy Spirit. Jesus told His disciples,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t. 16:24). This is the way of success. Do not think you cannot be tempted because you have a good spiritual condition. Until you die or Christ returns, you will always be tempted. As a Christian, you are already committed. Your desire is to follow God's will only. That is why you pray, listen to God, and totally rely on Him like Jesus. This season, let us go with Jesus Christ up to Calvary Mountain, to the cross. Let us walk together, not by our will, but by His will. Amen. ▮

다음주일 설교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굶주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주리신지라”(눅 4:1-2)



김성판 목사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일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백십이 다 세례를 받으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바돌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노라 하시니라”(눅 3:21-22).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높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한 직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생활이 완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까닭은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예수님을 이끌린 것 역시 성령님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예수님을 이끌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십 일 동안 아무것도 굶주시지 않았기에 몹시 지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던 사십 일 동안 성령님의 음성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영적인 삶은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영적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때에도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인 그리스도인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금식하는 사람들, 곧 영적인 상태가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자라야 할 부분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막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교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여섯 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지낼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여섯 주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같이 생각하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노라”(히 3:1-2).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소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비결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시험에서 승리하게 이끌어주실 수 있다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과 기도에 전심전력 하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라”(히 5:7-9).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만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배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영적 생활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생활이 위기에 처해질 때에만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뿐,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비마르고 텅 빈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재능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같습니다.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아가나. 오직 의인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자제히 살펴야 합니다.

전투지침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로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리라”(요 6:35).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불쌍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이렇게 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완전케 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가십시오. 아멘.

정로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김명길
(장로, 봉사위원장)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라도 교회의 5대 목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웃 사랑의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는 모두가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의 개념을 더욱 넓혀 봉사 안을 구제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위원회의 구제는 물론 이웃 사랑과 교회 차원의 봉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무 기관인 봉사위원회에서는 대내외의 구제와 대내외 구호 활동, 호스피스 활동과 교회내의 활동으로 차광안배, 자원봉사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일이 별로 화려하지 않고 내 보일만한 것도 없는 일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바야바야 할 일을 숨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제 활동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10절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형제 중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우리 교인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 끼, 즉 쌀과 부식을 매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절기 때에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고 예전지 못한 사고나 병 등으로 어렵고 다급한 분들을 특별구제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요청을 잘 살펴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나라와 국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거의 매년 당하던 것과같은 일들 보며 교회는 봉사위원회 내에 재난구호봉사대를 두어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할 일을 생각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성금을 내는 일보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품을 직접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이를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담은 구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특별구제헌금 때에 전 교인이 자발하는 성정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도 차광안배를 두어 교회에 나오는 날 차광안배의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70여 명의 집사님들이 바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교회에 모이기 있는 날은 언제든지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시에 1,200~1,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들은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안내와 사납고 운전하는 사람이 피로 해소해 나가면 잘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사방이 주택가이고 일방통행로가 많이 있는데 대 절전을 잘 지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문(북문) 앞의 도로는 올라갈 수 있는 도로나 내려갈 수 없는 일방통행로임을 명시하고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법과 질서를 지키고 먼저 양보하면서 차량 운행 및 주차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당의 안락을 깨끗하게 꾸리고 돌보는 일을 원하리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당 내외의 구석구석 18개 교구와 부서가 나누어 자원봉사를 하여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항상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말기 말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돌보는 호스피스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은 94명제 저금도 목회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제나 봉사가 어려운 것은 도와주면서 생각을 내고 자랑하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3)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지만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 하나까지도 대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매일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집회를 통해서 "자신을 구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의 위유를 위하여 소외되고 그리고 지옥직으로 아홉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 곧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개천을 파라 (왕하 3:15-17)

엘리아가 3절에는 참으로 특이한 모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한 연합군이다. 바벨과 아세리아를 성기는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함께 모여 모임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군사와 피라기는 생수를 먹일 물이 떨어진 것이다(9절). 물을 구할 수 없다. 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다. 전쟁은커녕 양아치 죽게 될 형편이다. 세 왕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왕하 3:10). 그런데 이 때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이 세 왕은 하나님의 신자 엘리아에게 찾아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한다(11-12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신다

여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공경에 처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서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에 또 하나 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자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기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돌보신다. 주를 믿는 인인을 향하시고 그의 저의 간구에 기뻐하시되 주의 낮은 인행하는 자를 한사나리나 하겠나니(신전 3:2). '의인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살보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사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 나 내 앞에서 대제를 먹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신 33:27).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믿는가?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문둥병자였던 나야만 장군을 생각해 보라. 유대인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이방 사람 나야만뿐이었다. 그러면 나야만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그는 자기에게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자신의 기도와 다른 말씀이 떨어졌지만 자기에게 순종하였던 것이(왕하 5:9,10,14).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의 음성에서 나온 것이다. 십자가의 십을 잡고 손을 갠다리니, 팔과 고난이 따르게 되거니와,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것을 기로하는 장애물이 있다. 우리의 고집, 인격, 자존심, 명예이다.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왕하 1:2). 참 423쪽.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몸의 자라기 기를 바란다. 늘 깨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왕하 5: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참회교회는 늘 기도의 나라이며 믿는 교회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교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우의의 예상대로 하시기로 하신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의할 것이 있다.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주님께 감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인간의 계산법이나 예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강조되어 있다(왕하 3:15,16). 나야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들어갈 일꾼 본 몸을 씻어야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여리고 성을 앞에 내 이스라엘에게 그 성을 둘러는 명령이 떨어졌다(수 6:3-5).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라 한 걸음씩 나아가자. 오늘 나는 명령을 오순 순종하고, 내일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 그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 단기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가 그러나 소망을 갖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막아주시고, 막아주시는 자를 돕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고전 1:27).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엘리아는 얼마나 미천한 사람이었는까 그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다. 존경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부으셨고, 그를 사용하셨다. 여호사밧은 엘리아를 가리켜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 저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군 열사를 주셨다(마 16:18). 여러분의 손에 천군 열사가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가? 참회교회가 이런 교회기를 기를 원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교회기를 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마 18:18). 백성들 은과 금과 대를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라. 여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이름을 증거하리라(왕하 3:6).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왕하 20:28).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승리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 왕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왕하 3:23,24). 여라비야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형기를 내게 된다고(왕하 2:14).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천국을 빼앗지는 못한다(마 8:3).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굳게 세우는 외선부 사역

외선부 스리랑카팀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스리랑카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문제, 말씀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외선부에서 스리랑카팀 지도를 맡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스리랑카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 한 사람 한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속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역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제게는 스리랑카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자를 통해 여호와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수련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오랜 세월 그런 가르침을 받아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인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외선부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굳게 세게 해 본교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외선부 사역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외선부에서 바른 일꾼들이 많이 양육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에 나가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선부를 통해 어렵지 않게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선부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선교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선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로 생각하여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 그들을 동정하는 시각으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점차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강기엽 (간사, 외선부 스리랑카팀)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광 상 조 (집사, 직원 C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상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올해에는 직원들도 단기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C팀으로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선교 준비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발음이나 어휘가 어려워 공부해 해도 금방 잊기 십상이지만 기초적인 어휘를 우선적으로 익히며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임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막상 길을 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길 기도합니다.

“보람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골 10:15).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 찬 미 (중등2과)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새해를 앞두고 씩씩하게 인도로 출발하였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의 선교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전도지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 보았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 신발도 신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외국인인 나누어 주는 전도지를 한 장이라도 더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보다 조금 어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데의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 인도 선생님들께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작은 학교도 있었고, 큰 학교도 있었지만 아이들 모두 울음을 따라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하였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몸이 아프고 많이 지쳤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과일과 죽으로만 배를 채우면서 집에 가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몇 날 남지 않았는데 어서 속히 나아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은 열도 내리고 어지럽지도 않고 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감기나 몸살 등을 앓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나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은 후에는 천사들과 만찬 하는 나라에 간 성도들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효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인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9일(월)~2월 17일(화)	B	교회상근부서	김영달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배춘식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박철구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김영은
2월 9일(월)~2월 21일(토)	J	대학부	안동현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황의만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박덕양
2월 10일(화)~2월 19일(목)	G	대학부	윤석진
2월 12일(목)~2월 21일(토)	J	대학부	정정길
2월 12일(목)~2월 21일(토)	D	대학부	차신득

◆ 이번주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16일(월)~2월 25일(수)	G	대학부	신상수
2월 16일(월)~2월 25일(수)	J	대학부	강철형
2월 17일(화)~2월 25일(수)	D	2교구	박종규
2월 18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박진철
2월 18일(수)~2월 28일(토)	B	대학부	최운덕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23일(일)~3월 2일(화)	D	대학부	정태두

*선교위원회 방침에 따라 국가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단기선교 팀장 수련회

일시 : 3월 1일(월) 10:00~17:00 / 장소 : 제2교육관 / 대상 : 지역장 144명

그리스도의 보혈

-아이자츠

유대인의 제단에서 죽임 당한 모든 짐승의 피로는 범죄한 양심을 평안케 할 수 없고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네.

그러나 하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으니 그 모든 짐승보다 더 나은 제물이요 더 값진 피임네.

나는 믿음으로 어린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자로 가기 서 있네.

나는 저주가 사악했음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하며 어린양을 즐거이 찬양하며 구원의 사랑을 노래 부르네.

신령과 진정으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가수니라" (딤후 1:15).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이런 청년1부 겨울수련회는 '신령한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 예배에 임하는 어떠한 방법이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대로 지키면 하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으로 그 자리에 임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의 고만이고,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번 수련회는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한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철칙한 죄인이고 주님이 우릴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여겨 하나님이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무지한 소망이었던 인간들 중 한사람이었던 것이다. 아니 나는 그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지하고 더 나약하고 더 포악한 죄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수련회에 초청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에도 말씀해 주셨다. 수련회를 다나온 지금도 매순간 나의 깊지도 않은 짧은 지식으로 모든 삶을 계산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내가 죄인 중에 과수라'라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될 줄로 믿는다.

나는 죄인이기에도 분명 날마다 또 쓰러지고 아파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b'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했나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양가사처럼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려 했을까 묵상하길 소망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진리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기도한다.

이은정(청년1부)

복음의 길을 걸음시다 6

그길 십자가의 길, 나의 길

"...내가 곧 길이고 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 (요14:6).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어지고 현실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하며 지나친 열심을 품지 말도록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여 교만하고 거짓된 가르침은 세상을 덮고 높은 명성을 얻고 많은 제자를 모으려 찬란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딤후 4:3-4). 이와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사랑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삶의 목표로 하여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환란도 무릅쓰며(고후 12:9, 골 1:24)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과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다시 얻고, 잃음으로써 도로 찾으며,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위대한 진리를 확증하는 진실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공동체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행 21:13-14).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의(義)의 면류관" (딤후 4:7-8)되었다고 고백하는 최후승리의 노래가 바울의 신앙, 바울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합니다. 그 길은 결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이 전리와 생명이며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벧전 5:4). 그러므로 이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성진(목사, 5교구지도)

영원한 행복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짜증난 때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 또래의 아이들은 주일에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아침 일찍부터 놀기도 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도 매주 그런 생각이 난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엄마가 깨우셔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간다. 또 내 친구들은, "야, 교회가 뭐 대수라고 한 번 빠져"라고 말할 때가 많다. 솔직히 나는 이런 또 신양의 혼돈됨을 참아 받는다. 오늘날 해도 그랬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중 한명이 나에게 오늘 자기 집에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 주일이라는 사실도 잊고 엄마에게 친구의 집에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엄마는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다. 사실 그 친구도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도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녀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내 머리 속에 주님이 속삭여 주시더라도 하셨는지,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 "주일이 친구랑 놀지 못하고 교회에 가는 것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친구와 함께 노는 행복은 잠시일 뿐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의 겐로 있을 때는 친구의 행복은 친구와 함께 하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나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버린다.' 정말 저금 당장의 행복은 60년, 길어야 80년까지만 못날 하늘나라의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금 이 순간의 유혹을 조금만 이겨낸다면 예수님은 나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다. 오히려 이런 유혹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건강 한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조성우(소년부)

교회탐방 ④ - 충현도서관

말씀과 휴식의 공간

성경을 읽는 중 난해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선교사는 국가의 언어를 공부할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교관 401호에 위치한 충현도서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담당하시는 집사님께서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개관 시간은 평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주일에는 2부 예배 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찾는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각 교육부서나 교재연구소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수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수는 21,000여권 정도 되고, 정기 간행물은 30~40여 종류입니다. 보유 도서 중 신앙 관련 서적이 80%, 일반 서적이 20% 정도 됩니다.

도서관 이용 인원은 매월 400~500여 명 정도이고, 대출 권수는 매월 500~600여 권 정도입니다. 대출은 1인이 한 번에 3권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연락하시면 일주일 연장 가능합니다. 사천루나, 시리즈 주석류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는 성경 강해집과 주석류입니다. 보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략부나 정년부 조장들이 그들 성경공부를 위해 이런 책들을 찾아마다 도서관에서 많이 공부합니다. 또 외부 신학생들도 드문 서적이 있더라 열람하러 오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도서 반납 기간을 무시하거나 책을 파손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입니다. 또 대출증을 발급하는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책들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물품을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성도들이 모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을 얻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람 중인 성도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얻는 유익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 ♡ 성경공부 시에 필독서들과 여러 가지 관련 도서를 모두 사서 보기 어려웠지만 교회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구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백미라, 5교구)
- ♡ 교회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연정, 소년부 교사)
- ♡ 성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어 조용히 성경과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민순기, 6교구)
- ♡ 성경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나 연대 순서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성경을 더 많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희정, 청년부 교사)
- ♡ 만년의 장사로 이용하기도 하고 주일의 남은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손종원, 14교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많은 양서를 갖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성경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편집실)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 4:2).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었을 당시 이 말씀은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의 순간에 저를 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물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정해준 일정에 맞추어 수술 날짜를 잡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모든 절차를 예정보다 빨리 마칠 수 있었고 수술 결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의 수술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평강과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가 자칫 힘들어 나실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가까이 계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하ie 건강하고 돈이 많은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재앙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병이 깊고 가난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참된 복입니다. 고통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겪기 전에는 '내가 해야하는 일이니가, 당연한 일이니가'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예배의 참석, 교육, 중등1부에서의 봉사, 그리고 수요일에 후에 했던 교대 팀의 전도가 아픔을 당한 후에는 그렇게 감사하게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도, 봉사로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 주일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구역 식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주어 진 시험 역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열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진 손(원사, 14교구)

♫ 다음 주일 찬송.....

443장 "시험 받을 때에"

다음 주일 찬송 '시험 받을 때에'는 누가복음 22장 32절(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는데 특별히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가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절: 주님을 죽이기까지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께서 시험중에 나를 몰도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것이다.

2절: 세상의 패악에 빠지거나 헛된 재물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겹새마리들 안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도록 하자.

이 찬송을 부르면 성도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올 때에 온총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3	박옥순	1 장년부		216	민유미	19 고등부	심향실(19)	229	이경호	19 청년부	민정하(2)
204	류 현	2 청년부	박정영(7)	217	김주리	19 고등부	이다영(3)	230	이현리	19 청년부	
205	최상숙	6 장년부	김기복(6)	218	장은정	19 고등부		232	송영일	19 청년부	
206	김상우	6 장년부		219	김재현	19 고등부		233	남성욱	19 청년부	양정자(1)
207	김진주	6 장년부		220	조경준	19 고등부	배성준(15)	234	임미선	19 청년부	김현경(1)
208	김성희	9 장년부	조규환(19)	221	이민우	19 대학부	김민재(12)	235	김경애	19 청년부	
209	최은정	10 장년부	주보훈(10)	222	김지선	19 대학부	박준근(4)	236	최후연	19 청년부	
210	이민정	10 장년부	박무비(10)	223	전승호	19 대학부	이진규(6)	237	송영현	19 대학부	
211	이종훈	13 장년부	김효실(13)	224	이민우	19 대학부	김소연(9)	238	원환민	19 최학부	김용숙(7)
212	전문주	13 장년부	송준수(14)	225	주후연	19 대학부	송희영(9)	239	원환민	19 최학부	박수진(17)
213	박용훈	15 장년부	이정혜(15)	226	황정호	19 대학부	장태은(5)	239	홍현우	19 청년부	
214	노은진	15 장년부	최현하(15)	227	최현진	19 대학부	김정광(14)	240	이영희	19 청년부	김민정(6)
215	최혜선	19 중등부	양복희(19)	228	김재주	19 대학부	오재석(1)	241	미영희	19 청년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전임독창자 김소연